

# 하나님의 영광과 인생의 위로: 제2제네바 신앙교육서 1-15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22문답 비교 연구

황 대 우

고신대학교, 역사신학

## 1 서론

“각하시여,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교육 없이는 결코 보존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알곡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번식하도록 지켜주는 종자와 같기 때문입니다.”<sup>1</sup> 우리는 여기서 왜 칼빈이 교리(doctrina) 즉 가르침을 교회의 영혼이라 불렀는지 이해할

\* 논문투고일 : 2013. 10. 10

논문수정일 : 2013. 12. 11

계재확정일 : 2014. 1. 31

1 *Ioannis Calvin Opera quae supersunt omnia* 13, 71-72(칼빈이 소머셋(Somerset) 공에게 보내는 1548년 10월 22일자 편지): “Croyez, Monseigneur, que iamais l’Eglise de Dieu ne se conservera sans Catechisme. Car cest comme la semence pour garder que le bon grain ne perisse, mais quil se multiplie daage en aage.” = Jules Bonnet, ed., *Lettres de Jean Calvin I* (Paris: Librairie de Ch. Meyrueis et Compagnie, 1854), 272. *Ioannis Calvin Opera quae supersunt omnia*는 이하 CO로 표기. 참고. Mattias Freudenberg, “Catecisms,” in *The Calvin Handbook*, ed. Herman Selderhuis, 김귀탁 역, “교리문답,” 『칼빈 핸드북』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413.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시대는 청소년을 신앙적으로 깨우고 가르치는 일, 즉 신앙교육에 열정적이었다. 16세기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뿐만 아니라 루터의 대, 소 신앙교육서와 칼빈의 제1, 2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교육서들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신앙교육이다. 지금 교회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기독교 교리에 근거한 신앙교육이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신앙교육의 부재 현상은 비단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교회의 총체적 난제다.

2013년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출판 450주년이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1563년 한 해에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판이 출판되었다. 이 최종판은 독일 남부 지역 팔츠(Palz)의 수도 하이델베르크에서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선제후령으로 공포한 팔츠의 교회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와 사회 및 교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6세기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16세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교회의 본질에 관련된 16세기의 교회 업무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

교회교육, 즉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신앙교육 문제는 바로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교육의 문제는 종교개혁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특히 어린이와 무지한 성인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신앙교육 교재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기독교 교리 즉 기독교 신앙 교육을 위한 교재가 바로 교리교육서 내지는

신앙교육서로 번역될 수 있는 ‘카테키스무스’(Catechismus)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종교개혁의 필수요소로 보았다.

16세기 당시 종교개혁이 수용된 곳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신앙교육서가 작성되고 가르쳐졌다. 스위스의 자치 도시 제네바도, 독일 남부의 선제후령 팔츠(Palz)의 수도 하이델베르크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존재하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개혁교회의 발원지로 알려진 제네바에서 작성된 신앙교육서는 16세기의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에 루터파와 개혁파가 혼재했던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된 신앙교육서는 오늘날까지도 개혁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실상부한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는데,<sup>2</sup> 이런 개연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작성의 가장 유력한 작성자 우르시누스가 1563년에 칼빈의 제네바 신앙교육서 불어판을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사실이다.<sup>3</sup> 우리는 이것을 올레비아누스가 칼빈에게 보

---

2 A. Lang,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Leo Jud's und Micron's kleine Katechismen, sowie die zwei Vorarbeiten Ursins) mit einer historisch-theologischen Einleitung*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 Nachf., 1907), XXXIX: “Dieser Charakterzug des Genfer Katechismus ist bei der Würdigung seiner bedeutenden Nachwirkung in der späteren catechetischen Literatur, zumal auch bei Abwägung seines Einflusses auf den Heidelberger, wohl im Auge zu behalten.”; LXXVI: “Nicht weniger aber wird deutlich, daß die Hauptquelle Calvin, resp. der Genfer Kat. ist das schon vor einem halben Jahrhundert ausgesprochene Urteil Sudhoffs, daß Calvin's Katechismus bei der Abfassung der Vorarbeiten Ursins vorzüglich berücksichtigt wurde, hat sich aufs bestimmteste bestätigt.” 참고. Karl Sudhoff, *C. Olevianum und Z. Ursinus. Leben und ausgewählte Schriften* (Elberfeld: Verlag von R.L. Friderichs, 1857), 88sq.

3 제목은 다음과 같다. *Catechismus. Der Euangelischen Kirchen in Frankreich gestellt in Frag und Antwort*(Heidelberg: Johannes Mayer, 1563). 참고. G. den Hartogh, *Voorzienigheid in donker*

낸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다. “언어 능력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에 의해 독일어로 잘 번역된 당신의 신앙교육서가 이번 장날에 출간됩니다.”<sup>4</sup> 또한 같은 해에 칼빈은 자신의 예레미야 주석을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에게 헌정하기도 했다.<sup>5</sup>

이런 영향 관계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두 신앙교육서 각각의 작성 배경과 특징들뿐만 아니라,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밝히고자 한다.

## 2 왜 ‘신앙교육서’인가?<sup>6</sup>

‘카테키스무스’(Catechismus = Catechism = Catéchisme)는 이미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용어는 ‘교리교육[서]’ 내지는 ‘신앙교육[서]’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카테키스무스’란 본래 교리 내지는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소정의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교육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복음의 기초와 핵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중

---

*licht: Herkomst en gebruik van het begrip ‘Providentia Dei’ in de reformatorische theologie, in het bijzonder bij Zacharias Ursinus* (Heerenveen: Uitgeverij Groen, 1999), 37(footnote. 91)-38.

4 CO 19, 684(칼빈에게 보낸 올레비아누스의 1563년 4월 3일자 편지): “Catechismus tuus germanice prodit hisce nundinis bene conversus a Zacharia Ursino, qui me facultate linguae superat.” 참고. Lyle D.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Sources, Histor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5), 72. 한글 번역은 다음 참조. 라일 비어마 외 3명 공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신지철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143.

5 CO 20, 72-79(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에게 보낸 칼빈의 1563년 7월 23일자 편지); CO 37, 461-462(prolegomena): “Commetarii in Ieremiam rarius in Thesauro epistolico mentio fit, et quae ibi passim de hoc opere leguntur fere unice ad Dedicacionem spectant, Friderico electori Palatino inscriptam, quae apud nos exstat Opp. Tom. XX p. 72 sub N. 3986 d. d. 23 Iulii 1563.”

6 이 제목 아래 내용의 대부분은 다음 책에서 가져왔다. 참고.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3), 6.

세를 거치면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및 성례가 주된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교육 방법으로는 반복과 암기가 필수였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문답형식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런 문답형식 때문에 ‘카테키스무스’는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으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모든 ‘카테키스무스’가 문답형식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루터의 대교리문답(1529)이나 최초의 제네바교회 교리문답(1537)이 문답형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Catechismus’라는 용어를 가진 16세기 문서들 가운데 문답형식이 아닌, 서술형식으로 작성된 것들이 상당수 있다.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것에 ‘문답’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카테키스무스’라는 제목으로 된 모든 문서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합당한 용어인 ‘신앙교육서’로 통일한다.

### 3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1542/1545)

#### 3.1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작성 배경과 구조

제1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칼빈의 1차 제네바 사역 기간 동안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칼빈이 파렐과 더불어 제네바로 부터 추방된 1538년 이후로는 무용지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1536년의 『기독교 강요』 초판과 새롭게 개정된 1539년의 『기독교 강요』 사이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sup>7</sup>

---

7 Frans H. Breukelman, *The Structure of Sacred Doctrine in Calvin's Theology*, ed. Rinse H. Reeling Brouwer and trans. Martin Kessler (Grand Rapids &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3), 73-116.

칼빈의 지지 세력이 칼빈과 파렐을 추방한 사람들보다 더 큰 정치적 힘을 얻게 되자 그의 지지자들은 제네바 도시의 개혁을 위해 칼빈을 다시 한 번 제네바로 모셔왔다.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1541년 11월에 단기간 내에 불어로 제네바 신앙교육을 작성하였고 이것을 1542년에 출판했는데,<sup>8</sup> 이것이 바로 “제네바 교회의 신앙교육: 즉 어린이에게 기독교를 교육하기 위한 양식: 대화 형식, 즉 목회자가 묻고 어린이가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됨”(Le catechisme de l’eglise de Geneve: c’est a dire le formulaire d’instruire les enfans en la Christienté: fait en maniere de dialogue, ou le ministre interroge et l’enfant respond)이라는 제목의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이다.<sup>9</sup>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이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1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달리 문답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구조적으로도 루터 신앙교육의 구조를 따랐던 1536년의 『기독교 강요』 초판과 1537년의 제1 제네바

8 참고. 마티아스 프로텐베르크, “교리문답,” 417.

9 CO 6, 9-134. CO(칼빈작품전집)는 질문의 문항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불어 원문과 라틴어 번역을 대조 편집하여 제공한다. 다른 권위 있는 불어판과 라틴어판은 다음 참조. OS 2, 72-144; E.F. Karl Müller, ed.,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1903), 117-153; Wilhelm Niesel, ed.,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8), 3-41; OS(칼빈작품전집)와 칼 물러 편집판에는 라틴어판만 제공되는데, OS는 질문을 숫자로 표기한 반면에 물러는 표기하지 않았다. 빌헬름 니젤은 문항수가 표기된 불어판만을 신고 있다. 다른 번역서들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Le Catéchisme de Genève* (Paris: Je Sers, 1534), 15-128; J. K. S. Reid, e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88-139; *Calvin-Studienausgabe 2. Gestalt und Ordnung der Kirche*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97), 10-135; Matthias Simon, ed. & trans., *Um Gottes Ehre: Vier kleinere Schriften Calvin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24), 93-164;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답』 (서울: 도서출판경건, 1995), 99-373; 박위근·조용석 편역, 『요한네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서울: 한들출판사, 2010), 31-235. 여기서 첫 책은 불어판 신앙교육서를 현대불어로 약간 수정하였고, 영어 번역과 독일어 번역은 모두 1545년 라틴어판을 번역한 것인데, 독일어 번역은 라틴어/독일어 대조본이다. 한인수는 불어에서 번역했고 박위근·조용석은 라틴어판을 번역한 것인데, 라틴어/독일어 대조본을 참고하여 라틴어/한글 대조본으로 편집했다.

신앙교육서와 달리 전체를 4장으로 나누었는데, 이 4장은 ‘신앙(사도신경)-율법(십계명)-기도(주기도문)-성례(세례와 성찬)’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sup>10</sup> 이런 배열 구조는 1539년의 새로운 『기독교 강요』와도 다르다.<sup>11</sup> 1548년 불어판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이전에 4장으로만 구분되었던 전체 문답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데, 즉 문답 전체가 “어린이가 암송하고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도록 주의 날 수만큼 55강좌로 나누어진다.”<sup>12</sup>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구조는 1534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출판된 부씨의 신앙교육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기록된 간단한 해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공통 조항들[=사도신경]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아버지[=주기도문]에 대한.”(Kurtze schriftliche erklärung für die kinder vnd

10 Willem van 't Spijker, “Calvin: Biographie und Theologie,” in *Die Kirche in ihrer Geschichte*, 3-J2, trans. Hinrich Stoevesand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J163. 한글 번역은 다음 참조. 빌럼 판 엷 스페이커르, 『칼빈의 생애와 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140. 여기서 판 엷 스페이커르는 칼빈의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1527년에 출판된 카피토(Capito)의 『어린이 신앙교육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또한 1534년에 출판된 부씨(Bucer)의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로부터 영향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칼빈이 자신의 1537년판 제1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대체할 의도로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한 한글 번역, “부씨의 작품은 칼빈이 『신앙교육과 신앙고백』(1537)을 대체하기 위하여 작성했던 더 큰 교리교육서의 경우에 분명히 맞는 말이다.”는 확실히 오역이다.

11 칼빈은 자신의 1539년 『기독교 강요』를 초판과 달리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증보했다. 하지만 주요 배열 순서는 ‘율법(십계명 해설)-신앙(사도신경 해설)-기도(주기도문 해설)-성례(세례와 성찬의 해설 및 나머지 로마교 거짓 성례에 대한 비판)’로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초판과 대동소이하다. 1539년의 『기독교 강요』 라틴어판의 1541년 불어 번역과 이것의 영어 번역은 다음 참고. Jacques Pannier, ed., *Oeuvres complètes de Calvi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1-4 (Paris: Société d'Édition “Les Belles Lettres”, 1961); Elsie Anne McKee, tra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41 French Edit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9). CO 1, 253-1152에는 『기독교 강요』 1539년 라틴어판부터 1554년까지의 증보판이 함께 제시된다.

12 CO 6, X: “..., in quinquaginta quinque lectiones dispescitur totidem diebus dominicis a pueris ediscendas et recitandas...” 참고. *Le Catéchisme de Genève*, 224: “Ce n'est que dans l'édition de 1548 que Calvin introduisit une subdivision en 55 《dimanches》.”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1년을 52주가 아닌 55주로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angohnden. Der gemeinen artickeln vnsers christlichen glaubens. Der zehen gebott. Des Vatter unsers.)의 구조와 대체로 일치한다.<sup>13</sup> 구조적 차이가 있다면 1542년의 『제2 제네바 신앙교육』이 성례 즉 세례(유아세례 포함)와 성찬을 주기도문 뒤 말미에서 다루는 반면에, 1534년의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는 성례(세례와 성찬)와 치리에 대한 문답을 사도신경 문답과 십계명 문답 사이에 둔다는 정도이다.<sup>14</sup>

1545년의 라틴어판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에는 불어로 작성된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교리 교육서』(Institution puerile de ladoctrine chrestienne faite par maniere de dyalogue)라는 간단한 신앙교육서가 마치 부록처럼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1부에서는 사도신경을, 2부에서는 주기도문을, 3부에서는 십계명을 매우 간단하게 다룬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5</sup> 이 간단한 신앙교육서는 구조상 부씨가 작성한 1537년의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와 동일하지만,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가 사도신경 문답과 주기도문 문답 사이에 다루는 세례와 성찬에 관한 문답을 생략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불어를 가르치기 위한 기초 학습서 『불어 ABC』(L'ABC françois)가 1551년에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 21문답으로 된 『우리

13 Robert Stupperich, ed.,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6/3. Martin Bucers Katechismen aus den Jahren 1534, 1537, 154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Gerd Mohn, 1987), 51-173. 이 책은 이후 MBDS로 표기함. 1537년에 출판된 스트라스부르 신앙교육서 “기독교 신앙의 12조항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대한 간단한 신앙교육 및 해설. 스트라스부르의 학생과 다른 어린이를 위하여”(Der kürzter Catechismus vnd erklärang XII stücken Christlichs glaubens. für die Schüler vnd andere kinder zu Strasburg)는 사도신경-주기도문-십계명 구조로 되어 있고 세례와 성찬에 관한 문답은 사도신경 문답과 주기도문 문답 사이에 있다. 참조. MBDS 6/3, 175-223.

14 MBDS 6/3, 72-95. 중세의 보헤미아 형제단과 왈도파도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의 배열순서로 된 신앙교육서로 가르쳤다. 참고. M. B. van 't Veer, *Catechese en catechetische stof bij Calvijn* (Kampen: J. H. Kok, 1942), 226-227.

15 OS2, 152-157.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어린이에게 묻는 방법』(La maniere d'interroguer les enfans qu'on veut recevoir a la cene de nostre Seigneur Iesus Christ)이 실려 있다.<sup>16</sup> 『불어 ABC』는 불어 철자를 소개한 바로 뒤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의 불어 전문을 차례로 소개한다.<sup>17</sup>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용되었는데, 1561년 교회법에 따르면 제네바 교회법에 따라 제네바에서는 신앙교육을 배우기 위해 약 10-15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매주일 낮 12시에 교회에서 모인 것으로 보인다.<sup>18</sup>

### 3.2 제1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특징

제1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작성된 목적과 같이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작성 목적 역시 “어린 아이들을 기독교 교리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sup>19</sup> 그러나 두 신앙교육서는 단지 구조와 형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신학

16 Rodolphe Peter, “L’abécédaire genevois ou catéchisme élémentaire de Calvin,” in *Regards contemporains sur Jean Calvi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5), 171-205. 이 책 199-202에 21개의 문답 전문이 실려 있다. 이 어린이 신앙교육이 칼빈의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 속에 포함되어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1553년부터이다. 참고. CO 6, 147-148, n.1: “Cette pièce se trouve pour la première fois dans le Catéchisme de 1553.”

17 Peter, “L’abécédaire genevois ou catéchisme élémentaire de Calvin,” 183-185.

18 Niesel, ed.,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1. 참고. Spijker, *Calvin: Biographie und Theologie*, J162-J163; 프로텐베르크, “교리문답,” 417.

19 CO 6, 3; Niesel, ed.,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3: “..., d’instruire les petis Enfans en la doctrine Chrestienne.” 이것은 독자를 위한 짧은 서문에서 언급된 것인데, 1545년의 라틴어판만 제공하는 OS(칼빈작품선집)에는 불어로 된 이 독자 서문이 없는 반면에, CO(칼빈작품전집)에는 이 서문의 라틴어 번역도 함께 제공된다. 1545년 라틴어 번역판은 동프리스란트(frisia orientalis) 즉 16세기에 네덜란드 접경의 독일 도시 엠덴(Emden). 1571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최초로 총회를 개최한 장소(역주)의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칼빈의 12월 4일자 편지가 서문으로 붙어 있는데, 이 라틴어 서문은

적 주제를 취급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제1 제네바 신앙교육서에서는 다루어진 ‘예정’ 즉 ‘선택’의 주제가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에서는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론, 인간적 전통, 교회에서의 출교, 권세들에 대한 진술” 등과 같은 주제들 역시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에서는 “배경 속으로 물러나고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sup>20</sup>

1537년의 불어판 제1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시작하는 첫 소제목은 이렇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sup>21</sup> 이 소제목은 1538년 라틴어판에서 이렇게 번역된다. “모든 사람은 종교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sup>22</sup>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다. 때때로 칼빈의 저술들에서 ‘종교’를 의미하는 라틴어 ‘렐리기오’(religio)는 ‘경건’을 의미하는 라틴어 ‘피에타스’(pietas)와 ‘믿음’을 의미하는 라틴어 ‘피데스’(fides)와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뿐만 아니라, ‘경건’과 ‘믿음’이란 단어들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신지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sup>23</sup>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Quelle difference il y a entre vraye et faulse religion)로 시작되는 제1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둘째 소제목의 설명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만

당연히 1542년의 불어판에는 없다. 1545년의 라틴어 서문은 다음 참조. CO 6, 5-8; OS 2, 72-74; Calvin-Studienausgabe 2. Gestalt und Ordnung der Kirche, 10-15; 박위근·조용석 편역, 『요한네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32-41.

20 프로텐베르크, “교리문답,” 421. 두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내용적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고. Veer, *Catechese en catechetische stof bij Calvijn*, 256-265.

21 OS 1, 378(=CO 22, 33): “Que tous hommes sont nez pour cognoistre Dieu.”

22 CO 5, 323: “Omnes homines ad religionem esse natos.”

23 ‘경건’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이수영, 『개혁신학과 경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276-281.

일 우리의 삶이 종교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매우 비참하게 살고, 동시에 우리가 거친 짐승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인정 된다. 점 이상으로, 경건과 신지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로 간주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그러나 그것은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주님과 같이 온전히 공경하며, 그분의 의를 품고, 죽는 것보다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정이다. 그리고 이런 열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분 자신으로부터 찾고, 자신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선언된 것 [=신지식] 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하지 않는다.”<sup>24</sup>

제1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먼저 하나님 알기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룬 다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Que cest quil nous fault cognoistre de Dieu), “인간에 관하여”(De lhomme), “자유 의지에 관하여”(Du liberal arbitre), “죄에 관하여와 죽음에 관하여”(Du peche et de la mort), “어떻게 우리는 구원과 생명으로 회복 되는가?”(Comment nous sommes restituez a salut et vie) 등의 주제를 다루고 “주의 율법에 관하여”(De la Loy du Seigneur)를 다룬다.<sup>25</sup> 이런 배열 구조를 통해 우리는 제1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창조-타락-구원’이라는 배열 구조도 반영한다.

24 OS 1, 379(=CO 22, 33-34): “Puisque cela est approuve par un consentement commun que si nostre vie est sans religion nous vivons tresmiserablement et mesmes que nous ne sommes en rien plus excellens que les bestes brutes, [34] il ny a nul qui vueille estre repute du tout aliene de piete et de reconnaissance de Dieu... :mais elle [=la vraye piete] consiste plustost en un pur et vray zele qui ayme Dieu tout ainsi comme Pere et le revere tout ainsi comme Seigneur, embrasse sa iustice, aye horreur de loffenser plus que de mourir. Et tous ceulx qui ont ce zele..., mais ilz cherchent la cognoissance du vray Dieu de luy mesmes et ne le conçoivent point aultre que tel quil se manifeste et declare a eulx.” 본문의 밑줄은 필자의 것임.

25 OS 1, 379-383(=CO 22, 35-38).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으로 시작되는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문답으로 시작되는 1542년의 『제2 제네바 신앙교육』에서도 나타난다. 목사(Le ministre)가 질문하면 10-15세의 어린이(L'enfant)가 대답하는데, 가끔 목사가 질문 대신에 설명을 부연하는 경우도 있다.

	불어 원문 <sup>26</sup>	한글 번역
1	Quelle est la principale fin de la vie humaine?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C'est de congnoistre Dieu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sup>27</sup>
2	Pourquoy dis-ut cela?	왜 그렇게 말하는가?
	Pource qu'il nous a creé et mis au monde pour estre glorifié en nous. Et c'est bien raison, que nous rapportions nostre vie à sa glorie: puis qu'il en est le commencement.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우리 삶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것은 합당합니다.
3	Et quel est le souverain bien des hommes?	그렇다면 인간의 최고선(=지고의 행복)은 무엇인가?
	Cela mesme.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4	Pourquoy l'appelles-tu le souverain bien.	왜 그것을 최고의 선이라 부르는가?
	Pource que sans cela nostre condition est plus mal-heureuse que celle des bestes brutes.	그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상태는 저 거친 짐승들의 그것[=상태]보다 훨씬 더 불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Par cela donc, nous voyons qu'il n'y nul si grand mal-heur, que de ne vivre pas selon DIEU.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Voire.	정말 그렇습니다.
6	Mais quelle est la vraye et droicte congnoissance de Dieu?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참되고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Quand on le cognoist, afin de l'honorer.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기 위함입니다.

	Quelle est la maniere de le bien honorer?	그분을 잘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7	C'est que nous ayons toute nostre fiance en luy: que nous le servions en obeissant à sa volonté: que nous le requerions en toutes noz necessitez, cherchant en luy salut et tous biens: et que nous reconnoissons, tant de cueur que de bouche, que tout bien procede de luy seul.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그분 안에서 추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선한 모든 것은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점을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일을 위한 분량에 해당하는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1-7문답에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신지식을 “인생의 최고 목적”이요,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칼빈은 14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sup>28</sup> 이처럼 ‘확실한 지식’(certa cognitio)에 대한 칼빈의 강조는 로마가톨릭의 ‘모호한 신앙’(fides implicita)에 대한 그의 부정을 의미한다.<sup>29</sup>

칼빈이 말하는 신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학습을 통해 획득

26 Niesel, ed.,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3-4; CO 6, 9.

27 라틴어 번역은 다음과 같이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인데, 그분에 의해 사람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참고. OS 2, 75; CO 6, 9: “Ut Deum, a quo conditi sunt homines, ipsi noverint.” 여기서 칼빈이 사용한 ut의 종속 동사 noverint는 현재완료 가정법(문법상 미래완료가정법도 됨)인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으로 읽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로 보인다.

28 Niesel, ed.,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4: “Le fondement donc d'avoir vraye fiance en DIEU, c'est de le connoistre en IESUS CHRIST (Iean 17, 3).” = CO 6, 9.

29 Willem Verboom, *De catechese van de Reformatie en de Nadere Reformat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86), 64.

득할 수 있는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즉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획득되는 ‘살아 있는 지식’(cognitio vivens)이요, ‘살리는 지식’(cognitio vivificans)이다. 칼빈에 따르면 이러한 신지식은 인간의 최고선이다. 즉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되고 올바른 신지식” 즉 “최고의 선” 없이는 인간이 야생의 짐승보다 “훨씬 더 불행한”(plus mal-heureuse)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칼빈이 보기에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de ne vivre pas selon DIEU)이다. 참되고 올바른 신지식의 소유자만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

위의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 2문답에 나타나는 단어 ‘글로리피어르’(glorifier: 영광을 돌리다, 찬양하다)와 6과 7문답에 나타나는 단어 ‘오노러르’(honnorer: 공경하다, 경배하다)는 동의어로 볼 수 있는데, 둘 다 칼빈이 말하는 신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받으시길 원하는 그 영광은 인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역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 목적인 신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참되고 올바른 신지식은 인간을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선이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최고선, 인생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며, 이 영광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행복인 구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곧 인간의 구원이다.

## 4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배경 및 특징

### 4.1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구조적 특징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1-2문답의 서론에서 “유일한 위로”(einiger trost)를 핵심으로 시작하여, 3-11문답의 1부에서는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비참”(Elend des Menschen), 12-85문답의 2부에서는 죄와 비참한 상태로부터의 “인간의 구원”(Erlösung des Menschen), 그리고 86-129문답의 3부에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Dankbarkeit)를 다루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유명한 삼중 구조가 어디서 연유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몇몇 중요한 연구물들은 서로 상이한 견해를 내놓았다.<sup>30</sup>

이 삼중구조에 관심을 갖고 그 기원을 추적한 선두 주자는 19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호우즌(Gooszen)이다. 그는 멜랑흐톤이 로마서의 구조를 자신의 방식대로 활용하여 저술한 1521년의 『신학총론』(Loci communes) 초판 구조에서 삼중 구조의 기원을 찾았다.<sup>31</sup> 하지만 이 주장은 14년 뒤에 독일 신학자 로이(Reu)에 의해 반박되었다. 로이는 주장하기를, 1554년에 레겐스부르크에서 출판된 니콜라우스 갈루스(Nicolaus Gallus = Nikolaus Han, Prediger zu Regensburg. 레겐스부르크의 설교자 니콜라우스 한)의

---

30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삼중 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81-86.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164-175.

31 Gooszen, *De Heidelbergsche Catechismus*. 75: “Ongetwijfel hebben wij hier een bewijs van den invloed, door Melanchton nog steeds in de Pfalz en vooral op Ursinus uitgeoefend. Want het schema wordt eenvoudig gevolgd, dat aan de Loci Theologici van Melanchton ten grondslag was gelegd, zooals het duidelijkst uitkomt in de eerst uitgave van 1521, en dat op zijne beurt door den Hervormer aan den brief aan de Romeinen was ontleend geworden.”

“우리의 거룩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르고 참된 교리의 간단하고 질서 정연한 총론”(Ein Kurtze Ordenliche summa der rechten Waren Lehre vnsers heyligen Christlichen glaubens)이 1558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재판 되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삼중구조는 바로 이 논문의 영향이라는 것이다.<sup>32</sup>

로이는 하이델베르크의 삼중 구조에 해당하는 단어, 즉 비참과 구원과 감사에 해당하는 elend(비참), erlösete(구원하다), danckbarlich(감사함으로)과 같은 단어들이 갈루스의 글에 사용되었다는<sup>33</sup>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바로 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로 인해 후에 유명해진 특징, 조직적 순서, 신앙교육적 저술이 루터파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sup>34</sup> 하지만 단지 어원상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구조’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럽기보다 오히려 억지스러워 보인다. 갈루스의 레겐스부르크 판도 그리스

32 Johann Michael Reu, ed., *Quellen zur Geschichte des kirchlichen Unterrichts in der evangelischen Kirche Deutschland zwischen 1530 und 1600*, 1. *Quellen zur Geschichte des Katechismus-Unterrichts. I. Süddeutsche Katechismen* (Gütersloh: Von C. Bertelsmann, 1904), 198-203, 특히 201-202.

33 Reu, ed., *Quellen zur Geschichte des kirchlichen Unterrichts in der evangelischen Kirche Deutschland zwischen 1530 und 1600*, 1. *Quellen zur Geschichte des Katechismus-Unterrichts. I. Süddeutsche Katechismen*, 720-734. 이것은 로이가 편집한 갈루스의 글인데, 명사 elend와 동사 erlösete와 erlöset은 724쪽에, 부사 danckbarlich는 731쪽에 각각 나타난다. 여기에는 레겐스부르크에서 출판된 연도가 1554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로이의 이 책을 각주에 소개한 것 외에 다른 아무런 각주나 설명도 없이 비르마는 그 연도를 1547년으로 소개하고 있다. 참고.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82.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166.

34 Reu, ed., *Quellen zur Geschichte des kirchlichen Unterrichts in der evangelischen Kirche Deutschland zwischen 1530 und 1600*, 1. *Quellen zur Geschichte des Katechismus-Unterrichts. I. Süddeutsche Katechismen*, 202-203: “So kommen wir zu dem Resultat, daß gerade einer von jenen dem Heidelberger Katechismus nachgerühmten Vorzügen, seine szstematische Anordnung, einer catechetischen Schrift aus lutherischen Kreisen entstammt.”



도인 각자가 ‘알고 믿고 행해야 할’ 세 가지 교리를 구분하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비참-구원-감사’가 아닌 ‘율법-복음과 믿음-선행’이다.<sup>35</sup>

로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독일 신학자 아우구스트 랑(August Lang)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와 다른 세 명의 네 가지 신앙교육서, 즉 취리히의 레오 유트(Leo Jud)와 네덜란드의 미크론(Micron), 그리고 우르시누스의 두 신앙교육서를 비교 연구한 책을 통해 로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삼중구조의 뿌리를 루터가 1520년에 작성한 “십계명에 대한 간단한 형식, 믿음에 대한 간단한 형식, 주기도문에 대한 간단한 형식”(Eine kurze Form der zehn Gebote, eine kurze Form des Glaubens, eine kurzen Form des Vaterunsers)에서<sup>36</sup> 찾는다.<sup>37</sup> 랑과는 달리 발터 홀벡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구조적, 내용적 근원을 테오도르 베자(Theodor Beza = Théodore de Bèze)가 1559년에 작성한 두 신앙고백서 “기독교 신앙고백”(Confessio fidei christianae)와 “다른 간단한 신앙고백”(Altera brevis fidei confessio)에서 찾았다.<sup>38</sup> 마지막으로 비르마는 로마서 구조에 기인된 삼중구조가 가

35 Reu, ed., *Quellen zur Geschichte des kirchlichen Unterrichts in der evangelischen Kirche Deutschland zwischen 1530 und 1600*, 1. *Quellen zur Geschichte des Katechismus-Unterrichts*. 1. *Süddeutsche Katechismen*, 721-731: “Volget in dreyen vnterschiedlichen haubt leren, Was ein yeder mensch wissen, glauben vnd thun sol,... Die erste lere inst vom Gesetze,... Volget die ander lere: vom Euangelio vnd dem glauben... ... Volget die dritte lere: von guten wercken.”

36 Otto Clemen, ed., *Luthers Werke in Auswahl II* (Berlin: Walter de Gruyter, 1950), 38-59. = *LW* 7, 204-229.

37 Lang,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 LXXIX-LXXXII. 여기서 랑은 우르시누스의 소신앙교육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둘 다 루터의 1520년 저술에서 삼중구조의 신학적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8 Walter Hollweg, *Neue Untersuchungen zu Geschichte und Lehre des Heidelberger Katechismus*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1), 86-110. 이 책 111-123에는 베자의 불어판 “간단한 기독교 신앙고백”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1562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출판된 번역문이 실려 있다. 이러한 홀벡의 주장에 대해 비르마는 상세하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다음 참조.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83-84.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장 먼저 나타난 것은, 랑의 주장처럼, 루터의 저술에서이지만, 삼중구조의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은, 호우즌의 주장에 따라, 델랑흐톤의 『신학총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로를 거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up>39</sup>

“비참-구원-감사”라는 삼중구조가 어디서 직접적으로 기원된 것인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중세에서도 존재했던 신앙교육서의 세 가지 내용, 즉 율법과 신앙고백과 주기도문을 다루는 구조에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분명 루터를 비롯한 루터파 종교개혁가들의 노선을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루터와 루터파는 ‘십계명-사도신경-주기도문’의 순서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스트라스부르의 부셔와 제네바의 칼빈이 작성한 신앙교육서는 모두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의 순서와 구조로 되어 있다. “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의 해설 구조로 되어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분명 루터파가 아닌 개혁파 라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1521년 판 『신학총론』에서 델랑흐톤 조차도 율법을 죄와 복음 사이에 위치시킴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여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 개념이 강한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순서 구조는 율법을 신앙고백 후에 다룸으로써 신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율법의 제3용법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개혁파적인 순서 구조와 일치한다.

---

입문』, 168-171.

39 Bierma,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85-86.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174-175.

## 4.2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22문답의 내용 분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1년 동안 매주 가르칠 수 있도록 52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1-22문답은 “신앙고백-율법-주기도문”이라는 순서를 다루기 전까지의 내용인데, ‘창조-타락-구원’이라는 구속사적인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23-64문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소제목으로 나누어 삼위일체론적으로 사도신경을 해설하고, 65-82문답은 성례와 세례와 성찬을 차례로 다루고, 83-85문답은 천국열쇠와 권징의 문제를, 86-115문답은 십계명을, 주기도문을 다루고 해설한다.<sup>40</sup>

서론에 해당하는 1-2문답의 주제는 인생의 “위로”이고 2문답은 이 신앙교육서가 삼중구조로 다루어진 것임을 예고한다. 1문답에서 사람의 “유일한 위로”(einiger trost)가 무엇인지 묻고, 그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Das ich … nicht mein sonder meines getrewen Heilands Jesu Christi eigen bin)이라고 대답한다.<sup>41</sup> 1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는 것과 죽는 것(leben vnd sterben), 몸과 영혼(Leib vnd Seel), 구원자(Heildand), 보혈(thewren blut), 죄(sünden), 마귀의 권세(gewalt des Teuffels), 구원함(erlöset), 성부(Vatter im Himmell), 성령(heiligen Geist), 영생(ewigen leben) 등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들이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이다. 2문답에서는 “당신이 이런 위로 속에서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zu wissen daß du in diesem trost seliglich leben vnd sterben mögest) 필수적인 것이 몇 개인가”를 묻는 질문에 “세 가지”라고

40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0-173.

41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1.

답하고, 그것이 죄와 비참함의 크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sup>42</sup>

3문답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자신이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sup>43</sup> 4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대답으로는 마22:37-40절을 제시하는데, 잘 알려진 대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가르친 본문이다.<sup>44</sup> 5문은 사랑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를 묻는데, 답은 “아니다!”(Nein)라고 부인한 다음에, 그 이유는 “본성적으로”(von natur)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한다.<sup>45</sup> 6문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신 결과로 그런지를 묻는데, 역시 “아니다!”라고 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gut vnnnd nach seinem ebenbild erschaffen) 사실을 강조하고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도 설명한다.<sup>46</sup> 창조목적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독일어: jn zu leben vnd zu preisen. 라틴어: ad eum laudandum et celebrandum)이라고 제시한다.<sup>47</sup>

7문이 사람의 타락이 창조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물을 때, 그것이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Auß dem fall vnd vngehorsam vnser ersten eltern Adams vnd Euen) 온 것이라고 대답하고, 우리의 본성도 함께 부패하였으므로 모든

42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3.

43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5.

44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5.

45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5.

46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7.

47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7.

인생이 죄악 중에 태어난다고 설명한다.<sup>48</sup> 8문답은 선행에 대한 전적 무능과 악한 경향성으로 인한 타락을 묻는 질문에, 성령에 의해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렇다!”(Ja)라고 대답한다.<sup>49</sup> 9문답에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고, 창조 시에는 지킬 능력이 있었지만, “고의적인 불순종으로”(durch mutwilligen vngheorsam)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sup>50</sup>

10문답은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 둘 다에 대해”(beyde vber angeborne vnd würckliche sünden) 진노하시고 처벌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라고 설명한다.<sup>51</sup> 11문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 아닌지를 묻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대답한다.<sup>52</sup> 12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초래된 “한시적 형벌과 영원한 형벌”(zeitliche vnnnd ewige straff)을 면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데, 그 방법으로는 “그분의 의가 만족되는 것”(das seiner gerechtigkeit gnug geschehe)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전한 지불”(volkomene bezalung)이라고 답한다.<sup>53</sup> 13문답에서는 우리가 그 값을 스스로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의 빛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다루고,<sup>54</sup> 14문답에서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하여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sup>55</sup>

48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7.

49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9.

50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9.

51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1.

52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1.

53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3.

54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3.

그러므로 15문답에서는 중보자와 구원자의 요건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인 분이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sup>56</sup> 16문답은 중보자가 왜 참된 인간이어야 하고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sup>57</sup> 17문답은 참되고 의로운 인간인 중보자가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sup>58</sup> 그리고 18문답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인간이신 중보자”(derselbe Mittler der zu gleich warer Gott vnd ein warer gerechter mensch ist)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친다.<sup>59</sup> 19문답은 이러한 진리가 “거룩한 복음에 의해”(Auß dem heiligen Euangelio) 알려지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낙원에서 계시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신 복음이라고 설명한다.<sup>60</sup> 20문답은 그리스도를 통해 만인이 구원받는지에 대해 묻고, “아니다!”라고 답한다.<sup>61</sup> 21문답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은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뢰이기도”(nicht allein ein gewisse erkandtnuß...: sonder auch ein hertzliches vertrauen) 한 것이라고 답한다.<sup>62</sup> 21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이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인데, 이것의 요약이 사도신경이라고 가르친다.<sup>63</sup>

---

55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5.

56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5.

57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7.

58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7.

59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9.

60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9.

61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31.

62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31.

63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33.

## 5 제네바와 하이델베르크 두 도시 신앙교육서의 차이점과 공통점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에서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것이 “최고선”인데, 이 최고선이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인생의 목적(finis humanae vitae) =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recta Dei cognitio) =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Deo glorificare) = 최고선(summum bonum hominis) = 하나님 따라 살기(Deo vivere) = 하나님 경외하기(Deo honorare).’

이런 점에서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인생의 위로를 가장 먼저 묻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와 확실히 출발점, 즉 접근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즉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인류 전체의 궁극적인 고민거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한 분 하나님, 즉 창조주이신 일체의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는데 반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인간 개인의 현실적 고민거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는다. 전자는 인생의 목적을 묻는 종말론적인 질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창조론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창조와 종말의 공통분모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풀어가는 반면에, 후자는 삶과 죽음 사이의 현실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인생이 불가피하게 추구하는 “유일한 위로”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위로의 주체이심을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창조의 목적에서 시작하는 제네바 신앙교육서와는 달리,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이라는 재창조의 결과에서부터 시작한다.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신과 인간’이라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관련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죄인과 그리스도’

라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관련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기위로부터 아래로,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아래로부터 위로, 즉 죄인인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접근법이 창조론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신론적인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접근법은 인죄론적이고 구원론적이고 기독교론적이다.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출발점이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출발점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를 너무 크게 부각시킨다면 이것은 두 신앙교육서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두 신앙교육서가 비록 접근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신학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16세기 다른 신앙교육서들에 비해 두 신앙교육서는 모두 각각 고유하고 독립적인 방법과 내용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독특한 접근법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독특한 접근법은 어디서 기원된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확실히 그것은 우르시누스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두 신앙교육서와 같은 접근법이다. 하지만 이 신앙교육서들 외에 인생의 “유일한 위로”로 시작하는 신앙교육서를 찾기는 어렵다.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구원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칼빈은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이 동참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자신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인지적



지식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느끼는 신앙 경험적 지식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도 가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2문답에서 유일한 위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과 죽음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nötig zu wissen)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1문답에서는 “참된 믿음”을 “확실한 지식”과 “진정한 신뢰”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지식과 신뢰가 믿음의 양면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구원의 양면이다.

위로부터의 구원과 아래로부터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구원의 무게 중심은 당연히 위로부터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 사건은 당연히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구원은 단순히 지상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구원, 즉 구원의 마지막 지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 즉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뢰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de le congnoistre en IESUS CHRIST)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인간의 구원이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비참한 인생을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라고 가르치는데, 이러한 소리는 제네바 신앙교육서에서도 들을 수 있다.<sup>64</sup>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비참한 인생살이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비루하고 부족하

---

64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 11문의 대답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선을 받을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님”(nous ne sommes pas dignes)을 가르친다. 참고. Niesel, ed., *Bekenn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4; CO 6, 11.

고 못난 인생이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 인생을 통째로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서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인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위로인 인간의 구원도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구원도 없다. 반대로 인간의 구원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의 공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영광조차도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포기를 통해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길을 여시는 분이다. 자신의 그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모델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칼빈의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가르침을 탁월하게 요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sup>65</sup>

## 6 결론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각각 작성의 배경이 다르다. 그리고 두 신앙교육서의 서두를 비교해보면 접근법이나 사용하는 용어, 출발점과 전개 방식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말하는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성부 중심의 창조론적이고 종말론적인 반면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위로로 말하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인죄론적이고 구원론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두 신앙교육서의 접근 방법이 형식적으로는 분명 다르지만,

---

65 프로텐베르크, “교리문답,” 420, 424.

내용적으로는 확실히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구원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차이점이라면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구원받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 둘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죄인의 비참한 인생의 온갖 문제가 오직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구원의 복음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

- 박위근 · 조용석 편역. 『요한네스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서울: 한들출판사, 2010.
-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 서울: 도서출판경건, 1995.
-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3.
- Bierma, Lyle D.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Sources, Histor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5. = 한글 번역: 라일 비어마 외 3명 공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입문』. 신지철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 Breukelman, Frans H. *The Structure of Sacred Doctrine in Calvin's Theology*. Edited by Rinse H. Reeling Brouwer and translated by Martin Kessler. Grand Rapids &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3.
- Calvin-Studienausgabe 2. Gestalt und Ordnung der Kirche*.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97.
- Clemen, Otto. ed. *Luthers Werke in Auswahl*, II. Berlin: Walter de Gruyter, 1950.
- Freudenberg, Mattias. "Catechisms" In *The Calvin Handbook*. edited by Selderhuis Herman J. 김귀탁 역. 『칼빈핸드북』.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Gooszen, M. A. *De Heidelbergse Catechismus: Textus receptus met toelichtende teksten*. Leiden: E. J. Brill, 1890.
- Hartogh, G. den. *Voorzienigheid in donker licht: Herkomst en gebruik van het begrip 'Providentia Dei' in de reformatorische theologie, in het bijzonder bij Zacharias Ursinus*. Heerenveen: Uitgeverij Groen, 1999.
- Hollweg, Walter. *Neue Untersuchungen zu Geschichte und Lehre des Heidelberger Katechismus*.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1.
-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Omnia (CO)*. 59 vols. Edited by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rdus Reuss. Brunsvigae: C.A. Schwetschke, 1863-1900.
- Johannis Calvinii Opera Selecta (OS)*. 5 vols. Edited by Peter Barth & Wilhelm Niesel.
- Lang, A.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Leo Jud's and Micron's kleine Katechismen, sowie die zwei Vorarbeiten Ursins) mit einer historisch-theologischen Einleitung*.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 Nachf., 1907.
- Le Catéchisme de Genève*. Edited by de la Societe Calviniste de France. Paris: Je Sers, 1534.
- Lettres de Jean Calvin I*. Edited by Jules Bonnet. Paris: Librairie de Ch. Meyrueis et Compagnie,

- 1854.
-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MBDS) 6/3. Martin Bucers Katechismen aus den Jahren 1534, 1537, 1543.* Edited by Robert Stupperich.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haus Gerd Mohn, 1987.
- Müller, E. F. Karl. ed.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1903.
- Niesel, Wilhelm. ed.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8.
- Pannier, Jacques. ed. *Oeuvres complètes de Calvi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1-4.* Paris: Société d'Édition "Les Belles Lettres", 1961. = McKee, Elsie Anne. tra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41 French Edit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9.
- Peter, Rodolphe. "L'abécédaire genevois ou catéchisme élémentaire de Calvin," in *Regards contemporains sur Jean Calvin*, edited by François Wendel.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5.
- Reid, J.K.S. ed. *Calvin: Theological Treatis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 Reu, Johann Michael. ed. *Quellen zur Geschichte des kirchlichen Unterrichts in der evangelischen Kirche Deutschland zwischen 1530 und 1600, 1. Quellen zur Geschichte des Katechismus-Unterrichts. I. Süddeutsche Katechismen.* Gütersloh: Von C. Bertelsmann, 1904.
- Simon, Matthias. ed. & tr. *Um Gottes Ehre: Vier kleinere Schriften Calvins.*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24.
- Spijker, Willem van 't. *Calvin: Biographie und Theologie. Die Kirche in ihrer Geschichte, 3-J2,* translated by Hinrich Stoevesand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 스페이커르, 빌럼 판 엷. 『칼빈의 생애와 신학』.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 Sudhoff, Karl. *C. Olevianum und Z. Ursinus. Leben und ausgewählte Schriften.* Elberfeld: Verlag von R.L. Friderichs, 1857.
- Veer, M. B. van 't. *Catechese en catechistische stof bij Calvijn.* Kampen: J.H. Kok N.V., 1942.
- Verboom, Willem. *De cateches van de Reformatie en de Nadere Reformat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86.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출발점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제2 제네바 신앙교육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각각 작성의 배경이 다르다. 그리고 두 신앙교육서의 서두를 비교해보면 접근법이나 사용하는 용어, 출발점과 전개 방식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말하는 제네바 신앙교육서는 성부 중심의 창조론적이고 종말론적인 반면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위로로 말하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인죄론적이고 구원론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두 신앙교육서의 접근 방법이 형식적으로는 분명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확실히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구원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차이점이라면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구원받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 둘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죄인의 비참한 인생의 온갖 문제가 오직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구원의 복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위로, 신앙교육서, 제네바 신앙교육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 **The Glory of God and the Comfort of Life: Comparing Second Genevan Catechism Q&A1-15 and the Heidelberg Catechism Q&A1-22**

Hwang, Dae Woo  
Kosin University

This is the article to research the stating points between the Second Genevan Catechism and the Heidelberg Catechism. It was different for Geneva and Heidelberg to make out their own Catechism. It is sure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tarting point, used words, and unfolding method between two Catechisms if the one may be compared with the other. For example, the Genevan Catechism starts proclaiming the honor of God in His creation and in eschatology in order to know God, whereas the Heidelberg Catechism begins soteriologically to say the only comfort in life and death by virtue of the works of Christ. The latter is Christ-centered, whereas the former is Father-centered.

There are those different points not in contents, but only in form, style, or an approach method. The two Catechisms are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tial doctrines, because the recognition of God and the only comfort of human being are two sides of the human salva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techisms is only one, that is how to approach. The Genevan Catechism begins to approach from God who redeems the mankind from sin and death, whereas the Heidelberg Catechism begins to approach from human being who should be saved from sin and death. These two ways happen to meet in Christ who was crucified, dead, and rose from the dead. Therefore, the Genevan Catechism and the Heidelberg Catechism attempt to present only the soteriological way in Christ our Saviour.

*Key Words:* Glory of God, Comfort, Catechism, Genevan Catechism, Heidelberg Catechism,